

34 ● 합성수지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박탈성피부염

성별	남성	나이	60세	직종	합성수지제조업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----	-------	----

1 개 요

근로자 ○○○은 2008년 3월부터 □사업장에서 에폭시 수지를 제조하는 작업을 하였다.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8월까지 약 6개월간 근무하였다. 그 후 모친 간병 등의 이유로 쉬다가 2009년 6월부터 정규직으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. 근무 중 발생한 피부염이 양손에서 전신으로 확대되고 낙설이 심해지면서 개인의원을 통한 치료로 낫지 않자 2011년 6월 병원을 방문하였고 박탈성 피부염을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

주원료인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에 희석제, 충전제 등을 각각 배합하여 포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배합비율을 달리하여 점도와 특성이 다른 다양한 제품이 생산된다고 볼 수 있겠다.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는 분리되어 생산, 포장되며, 소비 현장에서 혼합과 반응 과정이 일어난다. 작업량은 주문에 따라 불규칙적인데 배합에서 포장까지 하루 한 번 정도 작업하였다고 볼 수 있다.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8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다.

3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2010년 10월경 귀가 후 얼굴, 목, 발등에서 맑은 진물이 나고, 이후 인설성 병변으로 변하여 낙설, 소양감 및 작열감이 발생하였고, 전신적으로 확대되었다. 개인의원에서 치료하던 중 증상호전이 없어 2011년 6월 병원을 방문하였고 박탈성 피부염을 진단받았다.

4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은 기존에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에폭시 수지나 경화제에 노출되었고, 업무시 노출되는 피부 부위인 손, 팔, 얼굴, 목 등에 증상이 현저하였으며, 휴직한 1년의 기간 동안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되었다.